

다시 떠오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산 넘나

도,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맞물려 재도입 추진
9월부터 선진지 견학 등 거쳐 내년 시범사업 목표
2009년 주민갈등 이유로 폐지… 공감대 형성 난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이면도로 활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도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협로가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주민공감대 형성이다. 앞서 2009년 시범운영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갈등·민원 등 문제로 폐지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도입을 추진하며 올 상반기

계획했던 도민공청회를 연기한 것도 도민공감대 부족 판단에 따라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을 본격화해 귀주가 주목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도민이해도 증진에 나선다. 도내 43개 읍면

동 자생단체장, 리동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경기·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추진TF를 통해 부과 요금(안),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 운영방안을 모색해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조례안’ 마련 등 추진모형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부과 요금은 타 지방자치단체 요금 수준(월 3만~5만원)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로드맵 상 계획은 올 11월까지 도민공청회 개최,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물가심의를 마치고 제도 증진에 나선다. 도내 43개 읍면

2019 제주愛 빠지다 ⑥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사람꽃 카페로 마을 행복 꿈꿔요”

제주시 일도2동에는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이 ‘동네 사랑방’을 꿈꾸며 운영하는 ‘사람꽃 마을카페’가 있다. 다양한 생활 교육프로그램이 가득한 이곳은 선주민과 정착주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곳에서 교육, 모임, 운동, 요리, 회의 등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자신의 재능과 욕구에 맞는 삶의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일도2동에 연 마을카페 주민 만남·교류 공간으로 창업·요리·영화감상 등 주민 위한 프로그램 다채

“늘 열려있는 마을카페… 공동체 행복에 힘될 것”

사회공헌, 지역주민 공익증진, 취약계층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2017년 설립됐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배우고, 이로운을 판매하는 공간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운영수익금으로 지역의 소외 계층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7명으로 시작돼 현재 45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은 창업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5060공동체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60세 어른들이 마을놀이협동조합을 꾸리기도 했으며, 여성공동체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한 팀도 있다. 요리교육은 실습으로 그치지 않고 밀반찬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등 즐거운 취미·여가활동이 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 마을키움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맛별이 가정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안전문제와 사교육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공동체발전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이 진행한 ‘영화와 사진으로 함께 알아가는 제주여성의 삶’ 프로그램 활동 모습. 사진=조합 제공

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5060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한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고 있다. 문미희 사무국장은 “뭔가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여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정화에 물품을 기증하기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신다”고 말했다.

선주민과 정착주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올해는 ‘영화와 사진으로 함께 알아가는 제주여성의 삶’ 프로그램 속에서 지역의 역사문화현장을 탐방하며 소통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매달 3회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고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배운 후 촬영현장이나 역사적 현장을 찾아가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연말에는 ‘이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의 모습’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이 사람꽃 마을카페에서 열린다.

문 사무국장은 “사람꽃 마을카페는 늘 열려있고, 먼저 손을 내밀면니 잠자준다면 재미있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힘이 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함께 걸으며 만나는 역사의 흔적

24-25일 서귀포건축문화기행 원도심·대정읍서 시범투어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사회적이업(유)풍남이 주관하는 ‘서귀포건축문화기행’ 3·4차 시범투어가 이달 24~25일 이틀간 서귀포시 원도심과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서 첫알오름까지 역사의 흔적들을 따라가는 코스에서 펼쳐진다.

시는 제주올레 홈페이지(www.jejuoloe.org)를 통해 서귀포건축문화기행 참가자를 희망 선착순 40명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문화기행 시범투어는 서귀포의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하나 된 건축자원들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제주인들

의 삶을 들여다보는 문화탐방여행으로, 지난달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24일(오후 3~8시) 투어는 ‘별빛과 음악이 함께하는 서귀포 건축투어-서귀포 관광극장의 토요공연과 플라보 1’을 주제로 서귀포 동명백화점에서 시작해 서귀포관광극장, 이중섭거리, 서귀포관광극장을 순회하는 코스로 서귀포 구도심의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흠뻑 느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4차 시범투어(오전 9시~오후 1시)의 주제는 ‘4·3 다크투어-전쟁과 근대건축’이다.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격납고, 첫알오름, 옛 대정면사무소, 강병대교회를 순회하는 코스로 전쟁시설과 근대건축물을 둘러보며 제주



서귀포건축문화기행 3·4차 시범투어가 이달 24-25일 서귀포시 원도심과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등 역사의 현장에서 진행된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건축문화기행 참가비는 무료로, 여행자보험에 개별적으로 필수 가입

후 제주올레 홈페이지를 통해 매 회차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유)풍남 762-2178.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하늘에서 내려본 마을… 구석구석 기록 남겨요”

안덕면 드론 활용 사업 눈길

서귀포시 안덕면이 훗날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해 마을 기록사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안덕면(면장 이상현)은 안덕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의 일환으로 ‘드론을 활용한 안덕면 역사기록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안덕면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빠르

게 변화하는 시대에 현재 안덕면의 모습을 드론으로 기록하고자 추진되며, 향후 5년 단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 과거-현재-미래 등의 전기를 기록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촬영은 안덕면 지역내 12개 마을 중심지와 주요거점 포인트 15개소(동광육거리, 남송이오름, 아로마리조트, 소인국테마파크, 점보빌리지, 덕수초등학교, 눈오름, 상창교차로, 장천삼거리, 군산오름, 대평마을, 박수기정, 화순금포래해변, 사계해안체육공원, 산방산)를 선정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촬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제주시 공공문화기획자 모집

제주시는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제주시 공공문화기획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공살롱은 ‘유휴공간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실행’이라는 주제로 제주 시내 유휴공간에서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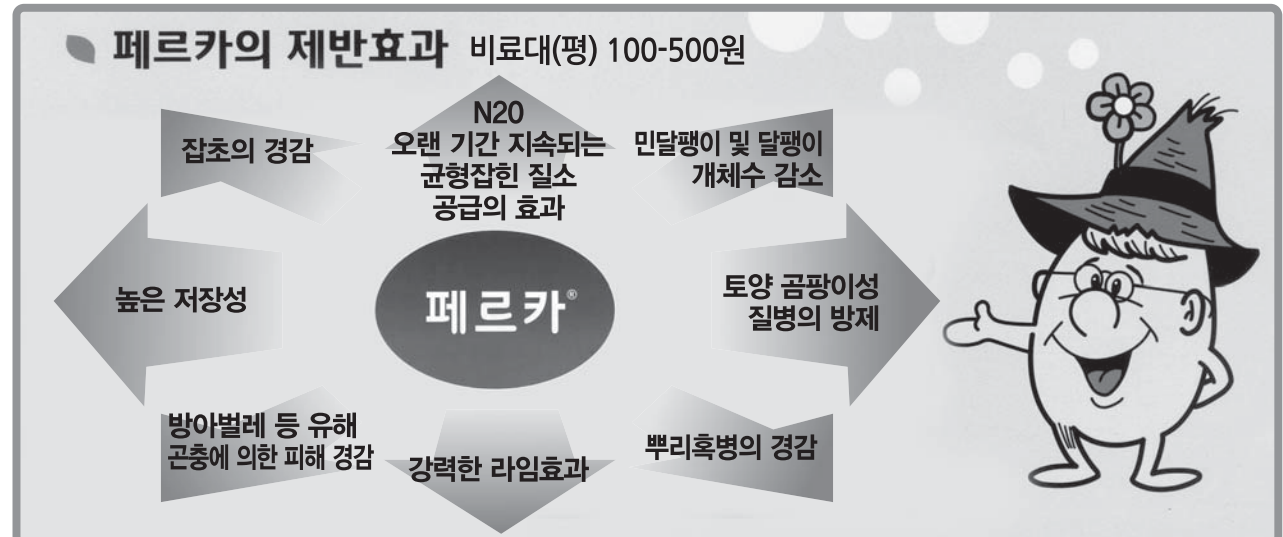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유휴공간 활성화 및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는 제주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제주시청 누리집(www.jejudo.go.kr

) 문화관광체육국 부서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jejuoosalon@gmail.com) 및 방문접수(제주시청 제5별관 3층 문화도시 사무실)하면 된다.

이 사업은 시민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 문화기획자 개인 및 단체 간 협업·협력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의 유휴공간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제주시 문화예술과(064-728-3821-2), 고대모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앵배추브로컬리무양배추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브로컬리 양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감 자

무 우

마 늘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밀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